

〈창선감의록〉의 효제(孝悌)담론과 보상의 교화성

박길희*

〈차 례〉

1. 머리말
2. 화진의 고난과 효제의 실천
 - 1) 어린 시절의 자질과 성향
 - 2) 현실적 처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 3) 내면·육화된 효제의 실천
3. 보상의 교화성과 구별짓기
 - 1) 감화와 보상, 그리고 그 교화성
 - 2) 보상의 이면, 구별짓기
4. 맺음말

〈국문초록〉

그간 17세기에는 가부장적 종법체제가 확립·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나 <분재기> 등을 살펴보면 17세기 말까지도 제사와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가족들끼리 심각하게 다투었던 정황들이 나타나 있다. 17세기 말에 창작된 <창선감의록>은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문내적 갈등을 문제적 상황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제와 같은 이념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창선감의록>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교화담론을 구현할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의 교화담론은 화진의 처지와 행위를 중심으로 구현된다. 애초 화진은 재기발랄하고 자부심이 강한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절대적인 지지자였던 가부장 화옥이 죽은 이후 심씨와 화춘의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인식한다. 그리고 심씨 모자에게 효제를 다한다. 이런 점에서 화진이 효제를 실천한 것은 자신의 처지와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 순천대학교

심씨 모자에게 효제를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두 사람을 개과시키는데, 여기에는 내면화되고 육화된 실천적 효제만이 진정한 효제라는 작가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창선감의록>은 화진이 효제를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공의 과정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 서사적 감동과 함께 화진처럼 효제를 실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과 욕망을 갖게 한다. 이 또한 교화적 목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작가는 화진의 효제보다 화춘이나 심씨의 개과를 더 높이 평가하거나 그 결과로 주어진 보상에도 차이를 두는 등 상층 내부의 위계화도 은밀하게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야기의 전개상 화진이 가문의 종통을 잇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그의 아들 천린을 화춘의 양자로 삼아 종통을 잇도록 하는데 이는 작가의 철저한 종법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선감의록>의 작가는 장자 중심의 종법체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상층 내부까지 적서의 차는 물론 장자와 차자, 혹은 동족 형제들 간에도 그 위계를 엄밀하게 구별짓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창선감의록>, 교화적 목적, 실천적 효제, 가부장적 종법체제, 구별짓기, 작가의식

1. 머리말

16세기부터 생성되기 시작한 성리학적 교화담론은 17세기에 접어들어 소설 장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전개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개창자들은 주자학을 지배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자가례』의 도입과 『경국대전』의 반포에서부터 『삼강행실도』, 『소학』, 『오륜서』, 『열녀전』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률서와 교훈서들을 간행하여 배포한 것은 이러한 인식과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에 걸쳐 발생한 네

차례의 사화(士禍) 등으로 인해 지배층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었으며, 국가의 체제와 이념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새로이 정권을 장악한 사람과는 성리학적 이념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설과 같은 서사갈래에 주목하게 된다. 그들은 『삼강행실도』와 같은 교훈서를 통한 교화 방식이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라 모두 예사로 넘긴다는 점, 착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식으로만 하니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등을 자각하고, 선과 악이 대비되는 권선징악적 이야기와 같은 새롭고도 참신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16세기에 낙서거사(洛西居士)가 ‘서사적 감동’을 통해 ‘교화적 목적’을 구현하고자 변안했던 <오륜전전(五倫全傳)>은 이러한 의식에 기반하여 쓰여진 최초의 대중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¹⁾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작업이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낙서거사는 <오륜전전>을 통해 『삼강행실도』나 『열녀전』 등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그것 역시 주제가 생경하고 서사도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²⁾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는 바로 이러한 교화담론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창작된 작품들이다.³⁾ 즉 두 작품은 <오륜전전>의 맥을 잇되 ‘서사적 요소’를 강화함으로

1) 정출현은 『삼강행실도』와 같은 교훈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자각한 사림과 문인들이 소설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오륜전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훈과 흥미를 결합한 최초의 대중소설이었다.('16세기 사림과 문인의 문학사회학적 인식 지평과 문학생성 공간의 연구', 『동양한문연구』24, 동양한문학회, 2007, 170~175쪽)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2) 정출현(2007), 위 논문, 175쪽.

3)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의 교화담론과 관련된 연구로는 임형택의 『17世紀 閨房小説의 成立과 倡善感義錄』(『동방학지』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9), 정출현(2007), 위의 논문, 김수연의 『창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惡女) 무후(無後)』(『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5, 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13), 이종필의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일 양상』(『고전과 해석』11,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써 성리학적 이념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교화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인 것이다.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소설을 부정했던 사대부 남성들이 두 작품에 대해서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도 이러한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는 <오륜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사성이 확장되어 있으며, <창선감의록>은 그러한 면이 더욱 강하다.⁴⁾ 당시 사대부 가문 내부에서 일어났을 법한 갈등을 문제적 상황으로 설정한 이후, 주인공이 성리학적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하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는 서사적 흥미와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통속적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해 놓았다. 예교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윤여옥이나 남채봉과 같은 인물형상, 청춘남녀의 애정과 관련된 이리저리한 사건의 설정,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선악의 대결 등은 당대인의 통속적 미감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창선감의록>은 조선 후기 내내 다양한 계층에 의해 폭넓게 수용·애독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

등이 있다.

- 4) <사씨남정기>가 처첩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단일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면, <창선감의록>은 종통계승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상호 길항하는 가운데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흔히 <사씨남정기>를 가정소설로, <창선감의록>을 가문소설로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양민정, 『초기 가문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가문의식-〈창선감의록〉을 중심으로』(『고소설연구』 12, 2001), 이원수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계명대학교 박사논문, 1991), 이성권의 『고전소설의 역사적 변모와 그 의미』(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8), 이승복의 『고전소설과 가문의식』(월인, 2000), 정길수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돌베개, 2005), 진경환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2), 최기숙의 『17세기 장편소설 연구』(월인, 1999) 등이 있다.

- 5)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종철의 『고전소설사에서의 17세기 소설의 위상』(『한국고소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성리학적 교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작가의 치밀한 전략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창선감의록>은 작품의 제목과 서문을 통해 충효와 같은 성리학적 교화담론을 노골적으로 표방한 후 주인공 화진이 효제(孝悌)를 실천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부귀공명을 치밀하면서도 흥미롭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소설을 재미있게 읽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화진의 효제에 감동하고, 마침내는 화진을 선망하게 된다. 특히 효제의 실천으로 화진에게 주어진 결과적 보상은 효제의 실천만이 욕망을 실현하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또는 비결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나 화진의 효행에 대한 평가나 그에게 주어진 보상 등이 결코 화춘과 심씨의 그것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천적 효리는 미명하에 수직적 위계질서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고 재생산해 내려는 작가의 치밀하고도 은밀한 ‘구별짓기’⁶⁾ 논리가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창선감의록>이 상층의 치밀하고 은밀한 교화 작업의 일환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화진이 효제를 실천하는 과정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효제담론이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 2011, 135~136쪽)을 참조하기 바람.

6) 여기서 ‘구별짓기’는 부르디외(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새물결, 2006)의 용어를 빌려온 것이다. 부르디외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보유 여부에 따라 취향과 계급이 결정되며, 이는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없다고 역설한다. 또한 그는 다양한 상징권력과 문화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취향으로 계급간의 차이와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상위계층에 의해 작동하는 ‘구별짓기’라고 이른다. 이 논문에서는 ‘구별짓기’를 상층계급이 자기 계층 내부를 서열화 또는 위계화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계급과 계급 혹은 계층과 계층 간의 차이를 전제로 사용한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열화 또한 결국은 내부인들 간의 차이 만들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라는 개념을 차용한다.

종법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려는 작가의 교화적 목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창선감의록>의 교화적 성격과 그 이면에 내포된 작가의 의식 및 지향이 더욱 섬세하게 포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화진의 고난과 효제의 실천

1) 어린 시절의 자질과 성향

지금까지 화진은 <사씨남정기>의 사씨처럼 작가의 이념에 따라 형상화된 관념적인 인물로 이해되어 왔다.⁷⁾ 즉 화진은 작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자제(子弟)의 전형으로, 현실적이거나 실존적인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을 꼼꼼이 살펴보면, 화진 역시 자신의 현실적 처지와 상황에 구속되어 행동할 뿐만 아니라 태도와 의식이 바뀌기도 한다. 화진의 태도나 의식은 특히 심씨의 박해를 계기로 변화하는데, 이는 그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화진(花珍)은 화옥(花郁)의 세 부인 중 셋째 부인인 정부인(鄭夫人)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풍모와 재주가 매우 뛰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정부인의 곁에서 항상 『효경』을 읽었으며, 아홉 살 무렵에는 『시경』·『서경』·『논어』 등 경전을 암송하였다. 또한 문장이 맑고 도량이 원

7) 지금까지 화진은 성현을 방불케 하는 이상적 인물, 혹은 유가 이념을 철저히 준수하는 이상적 인물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임형택(1989), 앞의 논문, 135쪽; 박일용,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0, 333쪽; 이승수, <창선감의록>의 인물과 은폐된 현실, 『동아시아문화연구』2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540쪽; 이나영, 『<창선감의록>의 주요등장인물분석-이기성정론에 입각하여-』, 『돈암어문학』 15, 돈암어문학회, 2002, 266쪽 등을 참조 바람.

대하여 화옥이 ‘우리 집의 연성벽(連城璧)’라고 칭찬하며 매우 사랑한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 칭찬은 화진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듯하다.

화진의 자질과 당당함은 아홉 살 때 아버지의 귀향을 권고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당시 병부상서였던 화옥은 엄숭(嚴嵩)이 조정의 정권을 잡은 이후 나날이 국사(國事)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근심하던 중 자신의 속내를 정부인에게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정부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탄식만 하는데, 이때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화진이 화옥에게 자신의 생각을 서슴없이 고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체동재동(螭蝮在東)하니, 막지감지(莫之敢指)라’ 했습니다. 지금 남어사께서 소인의 잘못을 배척하다가 스스로 화를 면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군자가 조짐을 보고서 물러가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⁸⁾

화진은 『시경』과 『논어』의 말⁹⁾을 인용하면서 거침없이 아버지의 귀향을 권고한다. 이 말을 들은 화옥은 화진을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화진의 말에 따라 귀향하게 된다. 이 사건은 화진이 얼마만큼 사리분별력이 있고 영민한가를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것인데, 화진의 재기발랄한 면모와 당당함이 잘 드러나 있다. 즉 화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8) 이래중 역주, 『창선감의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22쪽. 詩云, 螭蝮在東, 莫之敢指. 今南御史 指斥小人之過惡, 而不能自免 此正君子 色斯舉矣之秋也.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작품의 기본 자료는 위의 책이다.

9) ‘체동재동(螭蝮在東)하니, 막지감지(莫之敢指)라’는 『시경(詩經)』의 『국풍(國風)』, 중 ‘용풍(鄘風)’ 편에 나오는 것으로, ‘군자는 경계를 받아서 두려워하고 피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군자가 조짐을 보고 물러가야 한다.’는 말은 『논어(論語)』 『향당(鄉黨)』, 편 17장에 나온다.

이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부모에게 고할 정도로 당당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상춘정 사건’과 ‘심씨의 화빙선 퓌박 사건’에서 화진은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다. ‘상춘정 사건’은 화옥이 아들인 화춘과 화진, 그리고 조카 성준과 더불어 상춘정으로 나들이를 가서 생긴 일이다. 상춘정에서 화옥은 세 명에게 시를 짓게 하고 각자가 지은 시를 평가하는데, 화진의 시에 대해서는 ‘가문을 일으킬 자’라고 극찬한 반면에 화춘의 시를 읽고는 ‘화씨 종사가 네 손에서 망하리라’며 혹평을 한다. 나아가 화옥은 화춘에게 ‘매사를 동생에게 가서 배우라’고 명한다. 이 말을 곁에서 들던 성준이 ‘비록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반문 할 정도였으니, 당사자인 화춘에게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는가. 실제로 화춘은 그날 밤 어미 심씨를 찾아가 자신의 원통한 심정을 토로한다. 심씨 또한 각골통한하면서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고 미워한다. 이때부터 종통계승 문제를 둘러싼 화씨 가문의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심씨 모자는 상춘정 사건을 통해 가문의 종통을 화진에게 계승하려는 가부장 화옥의 의도를 인지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춘정에서 화옥의 발언은 가문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문제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¹⁰⁾

그런데 화진은 화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화춘이 아무리 용렬하다고 할지라도 화옥의 혹평은 지나쳤으며, 부자간의 도리를 저버린 발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생인 화진의 입장에서도 ‘매

10) 화옥의 발언에 대해 임형택과 이원수는 ‘가부장이 차자인 화진을 편애함으로써 화씨 가문의 갈등이 시작되었다’(임형택(1989), 앞 논문; 이원수(1991), 앞 논문)고 지적하였는데, 진경환은 ‘가문 내적 갈등의 근저에는 가문의 유지와 창달을 위한 심각한 배려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관건은 繼後·立長の 확립에 있다’(진경환(1992), 앞 논문, 115쪽)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를 동생에게 가서 배우라'는 화옥의 명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화진은 이 사건에 대해 의미부여 자체를 거부 혹은 거세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화진의 태도는 아버지의 귀항을 과감하게 권고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낮설기까지 하다. 그러나 화진은 심씨가 화빙선을 꺾박하자 상춘정 사건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인생 천지에 오륜(五倫)이 중하고 오륜 가운데서는 부자(父子)가 더욱 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이십니다.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모친께서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소자는 선군자의 혈속으로서 모부인(母夫人)의 슬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소자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매씨(妹氏)가 비록 취선이와 함께 수작한 바는 있었으나, 사사로운 정으로 주고받은 말은 원래 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에 찬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취선에게 있을 것입니다. 매씨가 언제 참견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한 규수의 몸은 남자와 다르니 오명(惡名)을 덮어씌우는 말씀은 더욱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만 바라건대 조금 측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¹¹⁾

상춘정 사건 이후 화옥이 죽자 성부인은 화옥의 유언에 따라 화씨 가문의 실질적인 가부장이 되어 화씨 집안을 다스린다. 그러던 중 성부인은 시동생의 초청으로 화문을 잠시 떠나 있게 되는데, 이때 심씨는 집안 중

11) 이래중 역주(2003), 앞의 책, 47쪽. 人生天地 五倫爲重 五倫之重中 父子爲尤重 父與母一體也 小子雖無狀 母親何忍以此言加之乎 小子以先君子之血屬 侍母夫人之膝下 此言奚爲及於小子哉 妹氏雖與翠蟬 有所酬酌 私情相語 本非大罪 而至於語涉怨望 罪在翠蟬 妹氏何與哉 且閨秀之身 異於男子 惡名相加 尤所不忍 萬望母親 小垂惻隱.

들에게 갖은 악행을 가한다. 이를 견디지 못한 유모 취선이 화빙선에게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데, 심씨는 이를 빌미삼아 화빙선이 취선과 짜고 적장자의 지위를 빼으려 한다며 두 사람을 문초한다.

위의 대목은 화진이 심씨에게 문초를 당하는 화빙선을 변호하는 부분이다. 화진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거론하면서 심씨의 처사가 부모답지 못하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또한 화빙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점과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규수에게 오명을 덮어씌우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심씨에게 직언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이처럼 화진은 심씨의 잘못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화빙선을 적극 변호하는데, 이는 분명 상춘정 사건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동안 화진은 ‘효제의 아이콘’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화진의 이중적 태도는 그가 효제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적 처지와 긴밀한 관련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즉 화진은 타고난 자질과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바탕으로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배운 대로 말하거나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등 호불호(好不好)가 분명한 아동기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심씨 모자에게 박해를 당할 때까지의 화진은 자부심이 강하면서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거나 호불호가 분명한 어린아이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고 하겠다.¹²⁾

그러나 인간 본성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작용들은 지배이데올로기가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억압당하게 마련이다.¹³⁾ 화진도

12) 화진이 아버지에게 귀향을 권고했을 때의 나이는 아홉 살, 상춘정 사건은 열 살, 화빙선과 심씨에게 고초를 당한 것은 열두 살 때였다.

13) 미하일 바흐친 지음,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355쪽.

예외는 아니다. 절대적인 지지자이며 보호자였던 화옥과 정부인의 죽음, 심씨 모자의 핍박으로 화진의 자부심과 진솔성 등은 점차 억압된다.¹⁴⁾ 아 니, 화진은 심씨 모자의 핍박을 통해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분명하게 깨 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2) 현실적 처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화진은 누이 화빙선을 변호하다가 자신마저 심씨에게 핍박을 당한다. 심씨가 애초에 문젯거리로 여겼던 인물은 화빙선이 아니라 화진이었다. 그런데 화진이 화빙선의 무고함을 변호하면서 심씨의 부모답지 못한 처사를 거론하자, 심씨는 이를 기회로 삼아 화진을 핍박하고 집에서 내쫓기 까지 한다.

심씨는 다시 공자를 불러 마당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 쇠뿔등이로 난간을 쳐부수며 큰소리로 죄를 꾸짖었다. “천한 자식 진아!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선군(先君)을 우롱해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으나,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 없어 대사(大事)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도리어 요망한 누이 흉악한 중년과 함께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려 하느냐?”¹⁵⁾

14) 남채봉은 화진과 유사한 인물이다. 여성인물 중 가장 재기발랄한 인물로 작품 초반부터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개성적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조녀가 정실부인이 된 후 그녀에게 잘잘못을 고하다가 오히려 심씨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되고, 이후에는 그녀의 재기발랄하고 개결한 성품 등 개성적인 면모가 퇴색하고 만다. 이에 반해 윤여옥은 자연스러움이 억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인물이다. 그는 화진과는 달리 윤씨 가문의 장자로 당대 최상층 인물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그의 재기발랄한 행동은 상층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적었을 것이며 억압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화진은 셋째 부인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뛰어난 자질과 당당한 태도가 상층인물인 심씨와 화춘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효제라는 이름으로 억압된 것이라고 하겠다.

15) 이태종 역주(2003), 앞의 책, 47쪽. 沈氏又招公子, 跪之堂下, 以鐵如意擊碎欄干, 大

심씨는 화진을 ‘천한 자식 진아!’라고 호명하면서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선군을 우롱해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다’고 호통을 친다. 심씨의 말은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심씨의 입장에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 선군인 화옥이 화춘을 박대한 만큼이나 화진을 끔찍하게 사랑했으며, 성부인의 태도 또한 화옥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⁶⁾ 그래서 심씨는 화진에게 심한 매질을 가한 후 집밖으로 내쫓은 것이다. 심씨 모자에게 고초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일은 화진에게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인지 집에서 쫓겨난 화진은 전과는 아주 다른 태도를 보인다.

공자는 매를 맞고 쫓겨난 뒤로부터 한번도 형의 얼굴을 보지 못해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 스스로 찾아온 형을 보고는 너무도 반가운 나머지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리고 화춘과 마주 앉아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몸 둘 곳이 없는 사람처럼 처신했다. 마침내 완고하고 어리석은 화춘으로서도 오히려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¹⁷⁾

위의 대목은 화진이 집에서 쫓겨난 지 4, 5일 후에 화춘이 찾아왔을 때 화진의 심정과 태도를 서술한 부분이다. 화진은 집에서 쫓겨난 뒤 며칠

聲數罪曰，汝賤子珍，藉勢成夫人，而愚弄先君，欲奪去嫡長，天不助惡，大事敗謬，及反與妖姊凶婢，謀爲不測乎？

16) 심씨와 화옥은 가문의 종통 계승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화옥이 화진에게 종통을 계승시키려고 하는 반면 심씨는 장자인 화춘이 종통을 계승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데, 이는 장자 중심의 종법체제가 실상에 온전히 정착되지 못한 17세기 말의 과도기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즉 화옥과 성부인은 기존의 가족제도를 명분으로, 심씨는 장자 중심의 종법을 명분으로 종통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17) 이래중 역주(2003), 앞의 책, 52쪽. 公子自見杖被黜之後 一不覩家兄之面目 鬱陶悲傷 殆不能自定 千萬意外 見家兄自至 中心喜極 涕淚縱橫 仍對璿 負罪引慝 若無所容.

동안 자신을 꺾박했던 심씨 모자를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화춘을 볼 수 없게 된 상황만을 애달파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화춘이 찾아온다. 화춘은 정부인이 돌아오면 자신과 심씨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화진의 기색을 살피기 위해 찾아간 것인데, 화진은 화춘을 보자 매우 반가워하면서 눈물까지 흘린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이 자신의 탓이라며 마치 몸 둘 곳이 없는 사람처럼 처신’한다. 며칠 전 당당했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화진의 기색을 살피려 왔던 화춘이 도리어 감동을 받았다는 것도 화진이 이전과는 달리 자신을 극진하게 대우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화진의 태도가 변한 것은 심씨 모자에게 당했던 고초, ‘천한 자식’이라는 심씨의 호명과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다’는 심씨의 말¹⁸⁾,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 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현실적 처지와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화진은 심씨 모자에게 꺾박을 당하면서 자신과 화춘의 관계와 위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자각했던 것이다. 이후 화진의 재기발랄하고 당당한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날 밤 화공자는 윤소저의 침실 응향각(凝香閣)에 들고, 이튿날에는 남소저의 침실 농취정(籠翠亭)에 들었다. 한 군자와 두 숙녀의 화려한 금슬은 관저(關雉)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성생이 웃으며 화공자를 놀렸다.

“형욱! 동방화축에 흥이 한창 났겠구려. 그 때에도 죽우당(竹友堂)의 차

18) 작품에서 화진은 화옥의 셋째 부인인 정부인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기에 서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자와 다름없는 존재이며, 특히 장자 중심의 종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심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탓에 ‘천한 자식, 진아!’라고 호명할 뿐만 아니라 ‘감히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한다’며 화진을 꺾박했던 것이다.

가운 이부자리가 생각이 나시던가?”

화공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찬 자리 더운 자리도 각각 때가 있는 것이니 분복(分福)에 따라 그 때마다 편안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거친 밥 삼베 이불에 팔을 베고 눕더라도 나는 편안히 여깁니다. 좋은 집 진수성찬에 시첩(侍妾)이 수백 명이라도 나는 또한 편안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윤공자가 찬탄했다.

“화형(花兄)은 가히 천명을 즐기고 운명을 아는 사람이라 이를 만하구려.”¹⁹⁾

화진은 열다섯 살이 되어 윤화옥·남채봉과 결혼을 한다. 이 결혼은 화옥이 죽기 전에 이미 정혼했던 것을 성부인이 적극 권유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결혼 전에 성부인이 화진과 두 소저의 결혼을 진행시키려 하자, 화진은 그 결혼이 자신에게는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거절한다.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성부인의 명분과 권유에 화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따르게 되지만, 화진에게는 그 결혼이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진이 초야를 치른 후 성준은 ‘동방화족의 흥’을 운운하며 화진을 놀린다. 이때 화진은 ‘찬 자리 더운 자리도 각각 때가 있는 것이니 분복에 따라 그 때마다 편안하게 여길 따름’이라고 대답한다. 윤화옥과 남채봉처럼 아름다운 이들을 한꺼번에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화진 자신에게도 더

19) 이래종 역주(2003), 앞의 책, 152쪽. 是夜 公子入尹小姐之寢室凝香閣 明日 入南小姐之寢室籠翠亭 一君子兩淑女 其琴瑟鐘鼓之樂 關雎之後所未有也 成生笑而戲公子曰 荊玉! 洞房華燭 豪興正高 此時 能今竹友堂冷衾耶 公子笑曰 冷衾暖衾 各自有時 隨分隨安而已 簞食布被 曲肱而枕 吾亦安之 金房玉饌 侍妾數百人 吾亦安之矣 顧何欣憾於其間哉 尹公子歎曰 花兄可謂樂天知命者也.

없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며, 성준을 비롯한 못 남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성준이 화진을 놀린 것도 그러한 부러움을 표출한 것인데, 화진은 자신의 처지와 분수로 인해 현재의 즐겁고 행복한 상황조차도 마냥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진이 성준의 농담에 대해 ‘분복에 따라 살 뿐이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답했던 것은 자신의 분수, 현실적 처지와 상태를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여겨진다.

화진의 이러한 인식은 혼례를 치른 후 두 부인과 함께 화씨 가문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은연중에 나타난다. 장모인 조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화진에게 두 소저를 부탁할 때, 화진은 겉으로는 ‘예예’라고 답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한숨’을 감추지 못한다.²⁰⁾ 이는 화씨 가문 내에서 자신의 처지가 두 소저의 행복은커녕 안전마저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진의 모습은 전과는 분명 다르다. 심씨 모자의 핍박을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화진은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출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심씨와 화춘에게 고초를 당하면서 이들과 자신이 결코 동등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하고, 이때부터 ‘분복을 편하게 여기는 삶’을 추구하면서 효제를 실천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후 화진은 효제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분복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

3) 내면·육화된 효제의 실천

화진은 심씨 모자의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두 사람에게 효제를 다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분복을 편하게 여기는 정도’를

20) 이태종 역주(2003), 앞의 책, 154쪽. 公子見其岳父母至意 因念兩小姐前頭 雖拱手唯唯 而中自太息也.

넘어서 ‘가히 천명을 즐기고 운명을 안다’는 윤여옥의 말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실천적이다. 즉 화진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심씨와 화춘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효제를 다했던 것이다. 이러한 화진의 효제는 작품 곳곳에 드러나 있다.

한림은 하늘로부터 인효(仁孝)를 타고 났으며 마음속에서 우애가 우러났다. 밥상을 대하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승경(勝景)을 만나면 형을 생각했으므로, 남해(南陔)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춘초(春草) 구절이 먼저 떠올랐다. 길에 나서면 적공(狄公)의 구름을 바라보았고, 자리에 누우면 강생(姜生)의 이불을 어루만졌다. 한림은 항상 울면서 탄식했다. “내가 만일 모친과 형장이 환심을 하루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으면만……” 그 밖의 부귀를 누리려는 일이나 처자와 사는 즐거움 따위는 모두 뜬 구름이나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여겼다. 그 때문에 촉중(蜀中)에서 한 해를 머무르는 동안 남부인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²¹⁾

화진은 심씨의 모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하춘해 등의 간청에 의해 죽음을 면하는 대신 촉중으로 유배되는데, 위 대목은 유배지에서 화진이 심씨와 화춘을 그리워하는 대목이다. 그는 유배된 처지에서도 끊임없이 심씨와 화춘을 그리워하며, ‘단 하루만이라도 그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탄식한다. 이러한 화진의 탄식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공자의 말을 연상케 하는데, 화진이 실천하고자 했던 효제는 바로 공자가 추구했던 ‘도’와 닮은 점이 없다. 곧 화진에게 있어서 효제의 실천은 삶의 유일한 의미이면서 궁극적인

21) 이태중 역주(2003), 앞의 책, 276쪽. 翰林仁孝出天 友愛根心 對食即思母 遇景則懷兄 南陔之淚未斷 而春草之句先成 行必瞻狄公之雲 臥必撫姜生之衾 常飲泣太息 曰 吾若得母親兄丈一日之歡心 則雖朝暮死而無恨也.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부귀를 누리는 일이나 처자와 사는 즐거움은 한갓 뜬 구름이나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화진의 효제는 서술자나 작품 내적 인물들에게 순임금의 그것에 비견될 정도로 높이 평가된다. 서술자의 지적대로, 화진은 인효(仁孝)를 타고났으며 그가 심씨와 화춘을 그리워한 것은 마음속에서 절로 우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화진의 효제를 관념적인 것으로 평가해왔다.

그런데 근래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 ‘유교의 윤리를 중시하던 당대 사회에서는 효가 오늘날보다 훨씬 강한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효의 실천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었던 만큼 효의 실천 자체가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화진이 효우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가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²²⁾는 것이다. 작품 내에서 화진은 실제로 효제를 실천함으로써 곤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러기에 위와 같은 견해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화진이 작품 내내 보여주는 효제의 실천적 모습은 현실적 대안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실적 대안으로 효제를 실천한다는 말에는 이미 그 행위에 인위성이나 작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효제의 실천이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진은 효제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생각을 하는 등 그 어떤 것보다도 효제를 가장 우선시한다. 나아가 그는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 신선이 될

22)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창선감의록』의 화진」,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36~137쪽.

기회가 있었는데도 심씨와 화춘을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소생은 이미 인간 세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질없이 천상(天上)의 일을 알게 된다면, 일신에 이롭기는 고사하고 한갓 마음만 산란해 질 것입니다. 가령 이 약을 먹고 신선이 된다 하더라도, 소생에게는 흠어미와 외로운 형이 있으니, 어찌 차마 남겨둔 채 혼자 떠날 수 있겠습니까?”²³⁾

위 대목은 화진이 족중에 유배되었을 당시 은진인이라는 선인(仙人)을 만나 나는 대화의 일부이다. 은진인은 화진이 본래 청정한 선계의 신선이었는데 진토에 떨어져 풍상을 겪은 뒤 맑은 정신이 혼탁해져서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알려준다. 또한 그는 화진에게 단약(丹藥)을 하나 건네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다시 신선이 될 수 있다며 먹기를 권유한다. 그러나 화진은 ‘흠어미와 외로운 형을 이승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신선이 되어 떠날 수 없다’며, 단약 먹기를 거부한다.

동양에서 선계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이며, 신선이 된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면서 영원불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과 한무제도 신선이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선계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절대적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진에게 신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나 바람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이상적인 삶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화진은 효제를 위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이를 통해 그에게는 심씨 모자에 대한 효제보다 더 소중하거나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

23) 이래중 역주(2003), 앞의 책, 289쪽. 小生既作人間之人 而妄知天上之事 則無益於身 而徒亂心懷耳 籍令此藥一飲成仙 小生有偏母孤兄 何忍捨之而獨往乎.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화진은 효제를 삶의 유일한 목적 또는 의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의 효제를 현실적 효력이나 대안 등과 관련지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씨가 화진에게 저지른 극악한 행위를 생각할 때 화진이 행한 효가 과연 순연한 마음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다음 대목은 화진의 효제가 어떤 차원에서 실천·구현되고 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윤공자는 인하여 화공자에게 물었다.

“이 아우가 공부가 부족해 마음 한 구석에 응어리진 곳이 있습니다. 단단하게 맺혀 풀 수가 없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장원의 재주로서 더욱 『맹자(孟子)』의 『호연장(浩然章)』을 읽어 의기(義氣)를 모으고 화기(和氣)를 길러 자신의 호연한 기상이 위축당하게 하지 만 않는다면, 그러한 근심 덩어리는 자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²⁴⁾

어느 날 윤여옥이 화진을 찾아와 마음 한 구석에 응어리진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묻는데, 화진은 『맹자』의 ‘호연장’을 읽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라고 권유한다. 화진의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호연지기는 ‘의기와 화기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호연한 기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맹자조차도 호연지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그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맹자는 송나라 사람처럼 ‘알묘조장(揠苗助長)’해서는 호연지기를 기르기는커녕 도리어 해

24) 이태중 역주(2003), 앞의 책, 153쪽. 因謂公子曰 弟之學力未確 心頭有一段繫着之處 糾結而不能解 欲罷而不能忘 何以則可以醫此病耶 公子曰 夫以長遠之才 益讀鄒聖浩然之章 而集義養和 使此氣不餒 則此等滓穢自然消磨矣.

칠 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바, 호연지기는 적어도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 틀림이 없다.

화진이 윤여옥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연지기를 기르라고 권했던 것은 자신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그간 화진은 심씨와 화춘에게 정신적·육체으로 모진 박해를 받아왔으며, 그 고통과 근심은 윤여옥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데도 화진은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이들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효제를 실천해 왔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호연지기를 기르고자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화진 ‘반드시 일로 삼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에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않는’²⁵⁾ 호연지기의 기상을 바탕으로 효제를 실천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화진이 행했던 효제는 온 몸과 마음에서 절로 우러난, 즉 내면화되고 육화되어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실천적 효’²⁶⁾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화진을 순임금에 비견했던 것은 바로 그가 ‘효제를 천명으로 알고, 천명을 즐기듯이 효제의 실천을 즐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25) 성백효 역주, 『孟子集註』, 『공손추』 상, 전통문화연구학회, 1991, 90쪽.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26) 아비투스(habitus)는 일정방식의 행동과 인지(認知), 감지(感知)와 판단의 성향체계로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내면화(구조화)되고 육화(肉化)되며 또한 일상적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양면적 메커니즘으로 우리말로 ‘실천감각’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나 ‘습관’이나 ‘습성’과는 구별된다. 부르디외(2006)에 따르면, ‘습관’은 반복적이며 기계적이고, 자동적이며, 생산적이기보다는 재생산적인데 반해서, 아비투스는 고도로 생성적이어서 스스로 변동을 겪으면서 조건화의 객관적 논리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삐에르 부르디외, 앞의 책, 13쪽). 이런 면에서 화진이 실천하는 효제는 아비투스와 의미맥락을 같이 한다. 화진의 효제는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변동을 겪으면서 얻어진 고도의 생성적인 상태의 효제이기 때문에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념적 혹은 습관적인 효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3. 보상의 교화성과 구별짓기

1) 감화와 보상, 그리고 그 교화성

화진은 심씨와 화춘의 끊임없는 꺾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효제를 실천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개과시킨다. 작품의 제목대로 효제를 통해 ‘창선감의’를 실현한 것이다. 그러나 화진의 효제는 어리석고 악한 인물들을 창선감의하는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다. 선한 인물들 또한 화진의 효에 감화되는데, 하춘해와 유성희 등이 바로 그들이다.

화진의 효에 감화된 이들은 자신의 위태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화진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하춘해는 위기에 처한 화진을 위해 직간을 서슴지 않으며, 유성희는 화진을 위해 기꺼이 전장에 참여한다. 또한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형성하여 화진을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²⁷⁾ 나아가 화진의 효는 하늘까지 감동시켜 은진인과 같은 선인(仙人)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화진의 효는 사람들을 감화시켜 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 변화의 기운이 다시 화진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면·육화된 효제를 실천한 화진에게 주어질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화진은 효제를 실천함으로써 가문을 살리고, 동문을 형성하며, 최고에 관직에까지 오르는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화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은 그의 장자 천린(天麟)이 화씨

27) 이는 최기숙이 밝힌 바 있는 가문의 연대(앞의 책, 1999, 148쪽)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화진의 효에 감화된 인물들이 무리를 이루어 화진을 도와준다는 것은 효의 실천이 사회적 연대나 관계망까지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작가는 화진이 효의 실천을 통해 가문, 동문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자본까지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화진처럼 내면화된 효를 실천하도록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문의 종통을 승계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간 심씨 모자가 화진에게 모친 박해를 가했던 것은 화진이 적장자의 위치를 넘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화진의 효제에 감화된 심씨 모자는 가문의 종통을 천린에게 승계토록 한다. 물론 이는 심씨 모자가 그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개과천선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과천선과 가문의 종통을 승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화진에 대한 폄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심씨 모자에게 가권 승계 문제는 매우 민감하면서 중대한 사안이다. 때문에 화진의 아들 천린을 양자로 맞이하여 화씨 가문의 종통을 승계토록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당대의 실상을 일정하게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조선 중기 이후 종법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자 자식이 없는 경우 양자(養子)를 들여서라도 가계를 승계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입후(立後) 후에 아들이 생긴 경우 친자(親子)에게 승계하고자 양자를 내치거나 친자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입후를 한 즉시 부자의 관계 곧 친륜의 질서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 관계를 바꿀 수 없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 결과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입후를 한 뒤에 친자가 생기더라도 입후를 파하지 않고 그대로 승종(承從)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었으며, 마침내는 이러한 입후 관행이 하나의 법령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²⁸⁾ 이렇듯 양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17세기에는 부계 친족 가운데 동생에 해당하는 사람의 아들만을 입양하는 등 그 방법이 극히 제한되기도 하였다.²⁹⁾

천린이 화씨 가문의 적통을 승계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1, 탐구당, 2003, 221쪽.

29) 마크 피터슨, 『유교사회의 창출』, 일조각, 2000, 171쪽.

개과한 심씨는 화진의 장자 천린을 화춘의 아들로 삼아 적부(嫡婦)인 임부인이 양육하게 하는데, 이는 당시 임부인에게 적통을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임부인에게 이미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심씨가 아무리 천린을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적장자를 두고 천린에게 가계를 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는 화진의 은밀한 욕망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종법체제에 대한 작가의 저항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³⁰⁾

그러나 임부인이 아들 둘을 낳은 것은 천린을 양자로 맞아들인 후의 일이다. 때문에 천린에게 가문의 적통(嫡統)을 잇게 했던 것은 당시 장자 중심의 종법의식이나 법령에 따른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장자의 종통계승을 확고히 함으로써 가부장적 종법체제를 강화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¹⁾ 요컨대 <창선감의록>의 작가는 화진의 아들 천린이 화씨 가문의 적통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결말을 삼아 이를 화진이 실천한 효제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형상화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화진의 보상을 극대화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화진을 욕망케 하면서도 장자 중심의 종법체제를 강화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창선감의록>은 효제의 효력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다양하

30) 이지영은 ‘천린이 화씨 집안의 계후가 된 점에서 화진의 캐릭터는 적장자 중심의 가부장제에 대한 은밀한 도전과 반발로 볼 수 있을 것’(앞의 논문, 2011, 147쪽)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1) 1662년(顯宗 3)에 일어난 沈之源과 관련된 사안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준다. 심지원의 사안은 後生子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선례가 된 사건으로, 7년 동안 14차례나 조정에서 거론된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입양 후 親子가 출생한다고 해도 그 입양은 취소될 수 없으며, 養子를 承重子로 삼고 나중에 출생한 친자는 次子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후, 관련 내용을 국왕의 재가를 받아 정식으로 반포했던 것이다. 마크 피터슨(2000), 앞의 책, 178~183쪽 참조.

면서도 생생하게 형상화함으로써 독자에게 서사적 감동과 함께 화진처럼 효제를 실천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과 욕망을 갖게 한다. 즉 <창선감의록>의 작가는 화진의 형상을 통해 내면화·육화된 효만이 진정한 효이며, 그런 효를 실천하면 모든 욕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결국 화진과 같은 효를 실천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보상의 이면, 구별짓기

장자 중심의 종법체제는 제사의 권한을 장자에게 부여하고, 또 이를 명분으로 가문의 재산을 장자에게 집중적으로 상속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장자와 차자 혹은 동족 형제간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장자를 중심으로 가문의 결속을 다지고, 나아가 가문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시 사대부들의 욕망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종법체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재산상속이었다. 그간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아왔던 차자 등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장자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종법체제를 법령화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17세기 말에도 재산과 관련한 형제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였다.³²⁾ 이러한 사실을 통해 17세기 말까지도 장자 중심의 종법체제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도가 실상에 적용되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17세기 말에 창작된 <창선감의록>이 작품 전면에 효제를 교화담론으

32) 이 시기의 분제기들은 균분상속제에서 장자상속제로의 변화가 반대나 투쟁 없이 이루어 질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1680년(肅宗 6)에 일어난 馬天牧 사안을 들 수 있다. 마크 피터슨(2000), 앞의 책, 68쪽 참조.

로 내세운 것은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장자 중심의 종법체제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제라는 관념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효제는 부형(父兄)에 대한 자제(子弟)의 끝없는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덕목인데, 화진이 실천한 효제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창선감의록>이 장자 중심의 종법체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은 가문내부의 질서를 은밀하게 위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종법체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자와 차자 혹은 동족 형제간을 엄격하게 구별지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가족제도에서는 형제들이 번갈아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재산 또한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으며, 형제간의 서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든 형제는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종법체제를 구축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다.³³⁾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제간의 서열화 또는 차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창선감의록>은 결말 처리를 통해 그 의도를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화진과 심씨 모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차별화를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어느 날 진공은 유연히 하얗은 병에 걸린 뒤 자리에 누운 채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자 심부인은 잠시도 병석을 떠나지 않고 진공을 간호했다. 경옥도 손수 약탕을 들도 탕재(湯材)를 달이다가 불길에 수염을 그을리기까지 했다. 유학사가 그 광경을 보고 감탄했다. “경옥이 잘못을 누워치는 점은 오

33) 조선 전기 『대전』에서 확정된 재산 상속에 관한 원칙, 즉 자녀 간에 부모의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남녀의 구별없이 균분한다는 것, 그러나 같은 자녀라도 적자녀와 서자녀 사이에는 7대 1(천첩 자녀의 경우 10대 1)의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조선전기는 물론 17세기 중엽까지도 충실하게 지켜졌음을 東萊 鄭氏의 분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위의 책, 31쪽.

히려 형옥보다 낫구나.”³⁴⁾

심부인은 인하여 진공이 찾아온 홍옥천과 청옥패를 두 부인에게 나누어 주고 탄성을 발했다. “수극(垂棘)의 구슬이 다시 진나라 수중으로 돌아갔구나.” 이윽고 심부인은 진공과 두 부인을 불러 좌우에 머물게 하면서 지성으로 사랑을 베풀었다. 늙은 계집종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부인께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보다 더 나오실 수가 있겠는가?”³⁵⁾

위의 두 대목은 화춘과 심씨가 개과한 후 이들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반응을 서술한 부분이다. 첫 번째 대목은 화진이 하찮은 병에 걸려 잠시 자리에 누웠을 때 화춘이 화진을 위해 손수 탕약을 달이다가 수염이 불길에 그을게 되는 장면인데, 이를 지켜본 유학사는 ‘경옥이 잘못을 꾸우치는 점은 오히려 형옥보다 낫다’고 평한다. 두 번째 대목은 심씨가 개과한 후 화진과 화진의 두 부인을 사랑으로 대하자 이에 대해 감동하는 계집종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늙은 종들은 ‘정부인께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보다 더 나오실 수가 있겠는가’라며 개과한 심씨가 화진의 어머니 정부인보다 낫다고 평한다. 또한 이들은 심씨의 모습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화진은 온갖 시련을 감내하면서 효제를 실천해 왔다. 그리고 순임금에 버금갈 정도로 높이 평가된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화진도 결국은 개과

34) 이태종 역주(2003), 앞의 책, 408쪽. 一日 晉公偶得微感 呻吟度日 沈夫人保護枕側 不捨須臾 景玉自執藥鑊 吹火焦鬚 柳學士見之 嘆曰 景玉之 改過也 尤賢於菀玉 矣.

35) 이태종 역주(2003), 앞의 책, 416쪽. 因以晉公之所得紅玉釧青玉佩 分與兩夫人 而 歎曰 垂棘之璧 復歸晉藏矣 於是 沈夫人召晉公與兩夫人 置之左右 至誠撫愛 老 婢等相顧出涕曰 雖鄭夫人復起 何以過此.

한 화춘보다 못하며, 화진의 친모인 정부인도 개과한 심씨보다 못하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⁶⁾ 작가는 임암리에 화춘 모자의 개과천선을 그간 화진이 보여주었던 눈물겨운 효제나 정부인의 현숙함보다 더 높게 평가함으로써 방계인 화진 모자와 적통에 해당하는 화춘 모자를 은밀하게 구별짓고 있는 것이다.³⁷⁾

이러한 양상은 부귀영화의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작품의 결말에서 화진은 자신이 얻은 부귀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할 뿐만 아니라 윤·남 두 부인들에게도 자신들이 얻는 부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며 분수에 맞게 살도록 종용한다.³⁸⁾ 반면에 심씨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향유한다. 천자는 심씨를 진국대부인(晉國大夫人)으로 봉하고 진국공의 새집이 완성되자 자손들로 하여금 심부인에게 헌수(獻壽)를 올리도록 하는데, 심씨의 헌수 장면은 ‘진부(晉府)의 영광이 만고에 보기도 못할 정도’라 할 만큼 성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렇듯 심씨가 말년에 누리는 부귀영화는 화진의 효행에 감동하여 개과천선한 결과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결말 처리는 어떤 경우

36) 이와 유사한 장면은 작품 곳곳에 삽입되어 있다. 임부인은 화춘이 변화한 모습을 보고 그간 화춘이 덕을 잃었던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오히려 자신을 탓하면서 화춘을 군자라 이른다. 또한 서평후와 윤학사 등은 조정에 화춘을 천거하는데 화춘이 이를 거절하자 여론은 화춘을 홀탕하다고 여긴다.

37) 화옥의 세 번째 부인인 정부인은 조용하고 기품이 있으며 마음도 어질어 화옥이 가장 아끼고 존중했다. 정부인은 일찍 죽은 탓에 작품 초반에만 등장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위 대목에 갑자기 등장하여 심씨의 어쥘을 부각시키면서 새삼 거론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적통과 방계를 구별지으려는 작가의 집요하면서도 은밀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38) 화진은 두 부인에게 “무릇 위험에 처하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행운을 만나면 장차 다가올 재앙을 염려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바른 도리지요. 부인들은 감히 부귀영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로 두 부인에게 분수대로 살도록 당부한다.

에도 차자 또는 방계인 화진 모자는 적통인 화춘 모자를 넘어설 수 없으며, 또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식이 은밀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춘의 개과 후 모습을 화진보다 더욱 부각시켜 서술한 것은 장자와 차자 간의 위계를 분명하게 구별지으려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종법의식을 바탕으로 상층 내부마저 철저하게 위계화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화진의 아들 천린으로 하여금 화씨 가문의 종통을 승계토록 설정한 데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화욱이 화진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화춘을 미워한 것은 화진으로 하여금 화씨 가문의 종통을 잇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씨나 화춘이 화진을 핍박했던 것도 이 문제 때문이었다. 실제로 화진은 화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화씨 가문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며, 개과한 심씨나 화춘도 이 점을 높게 평가한다.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상 화진이 화씨 가문의 종통을 계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화진은 화씨 가문의 종통을 잇지 못하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도 화진이 화춘의 지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작가가 화진의 아들 천린을 화춘의 양자로 삼아 화씨 가문의 종통을 승계토록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화진의 효제와 화진이 화씨 가문의 번영에 기여한 보상적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적자가 아닌 화진이 화씨 가문의 종통을 이어서는 안 된다는 종법의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즉 <창선감의록>의 작가는 장자 중심의 종법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층계급 내부에서도 적서의 차는 물론 이거니와 장자와 차자 혹은 동족 형제들 간에도 위계화 또는 구별짓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창선감의록>이 작품 전반에 효제를 내세운 것은 효제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관련이 깊다. 효제는 부형에 대한 자제의 복종과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상하의 관계를 엄밀하게 구분짓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효제는 천륜으로 인식되는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도리에 해당하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절대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된 효제는 수직상하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봉건적 계급사회에 나가서도 그 제도와 이념에 쉽게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가문과 종족 내부의 갈등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나 사소한 사건들이 왕에게 자주 보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의 정부가 올바른 가족관계를 중요시한 증거이며, 유교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³⁹⁾ 따라서 성리학적 이념을 토대로 봉건적 신분관계 및 상하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17세기 사림과 문인들이 효제를 근간으로 가문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은 가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를 별개로 인식하지 않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며, <창선감의록>의 효제담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창선감의록>의 주인공인 화진이 효제를 실천하게 되는 과정과 그가 행한 효제의 성격 및 보상 등을 분석함으로써 작가의 의식 및 지향을 더욱 섬세하게 드러낼 목적으로 쓴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 화진은 태어나면서부터 효제의 아이콘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39) 마크 피터슨(2000), 앞의 책, 9~10쪽.

그러나 심씨에게 꺾박을 당하기 전까지의 화진은 배운 대로 말하고 호불호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자부심이 강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심씨의 꺾박을 계기로 화진은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심씨와 화춘에게 효제를 다한다. 그렇다고 해서 화진의 효제를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지어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진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심씨 모자를 위해 도리어 살신성인의 자세로 효제를 실천한다. 따라서 그가 실천한 효제는 관습적·당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내면화·육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은 감화와 보상 등 화진의 효제가 갖고 있는 효력을 다양한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자는 화진처럼 효제를 실천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과 욕망을 갖게 된다. 여기에는 이는 효제라는 교화담론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작가의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선감의록>의 작가는 상층 내부마저 구별짓기를 은밀하게 시도하고 있다. 화진의 효제보다 심씨나 화춘의 개과를 더욱 높게 평가하거나 그 결과로 주어진 보상에 차이를 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야기의 전개상 화진이 종통을 승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작가는 천린으로 하여금 화씨 가문의 종통을 계승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장자가 아닌 화진이 화씨 가문의 종통을 이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장자 중심의 종법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장자중심의 종법체제는 제사의 권한을 장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재산상속권마저도 자연스럽게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7세기 말까지도 형제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작가는 장자와 차자 혹은 동족 형제간을 엄격하게 구별지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1, 탐구당, 2003, 1~641쪽.
- 김종철, 『한국고소설연구의 쟁점과 전망』, 『고전소설사에서의 17세기 소설의 위상』, 보고서, 2011, 85~138쪽.
- 김수연, 『<창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惡女) 무후(無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5, 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13, 335~363쪽.
-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옮김,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1~506쪽.
- 마크 피터슨, 『유교사회의 창출』, 일조각, 2000, 1~252쪽.
- 미하일 바흐친 지음,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3~476쪽.
- 박일용,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0, 323~356쪽.
- 성백호 역주,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원, 1990, 3~554쪽.
- 성백호 역주,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학회, 1991, 3~447쪽.
- 양민정, 『초기 가문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가문의식-〈창선감의록〉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37~64쪽.
- 이나영, 『<창선감의록>의 주요등장인물분석-이기성정론에 입각하여-』, 『돈암어문학』 15, 돈암어문학회, 2002, 249~293쪽.
- 이래중 역주, 『창선감의록(倡善感義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9~455쪽.
-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11~436쪽.
- 이승수, 『<창선감의록>의 인물과 은폐된 현실』, 『동아시아문화연구』2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529~561쪽.
-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1991, 3~242쪽.
- 이종필,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일 양상』, 『고전과 해석』11,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1~33쪽.
- 이종필, 『조선중기 전란의 소설화 양상과 17세기 소설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2, 1~173쪽.
-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창선감의록〉의 화진』,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23~151쪽.
- 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説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57, 연세대 국

- 학연구원, 1988, 103~176쪽.
- 장기근 역저, 『論語』, 명문당, 2003, 19~680쪽.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9~379쪽.
- 정출현, 『16세기 사림과 문인의 문학사회학적 인식 지평과 문학생성 공간의 연구』, 『동양한문학연구』24, 동양한문학회, 2007, 151~176쪽.
-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2, 1~284쪽.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9~490쪽.
- 베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상, 새물결, 2006, 11~463쪽.

ABSTRACT

The Discourse of Hyoje and Educational Personality
of Compensations on <Changsungamerok>

Park, Gil-hee

<Changsungamerok> supports the edification purpose plainly from its title and in its preface which emphasizes the loyalty and filial piety. Furthermore, this book interestingly represents that Hwajin practises 'Hyoje' and is given wealth and fame. Readers are impressed tacitly with Hwajin's 'Hyoje' and finally envy Hwajin. Especially, the resulting reward given to Hwajin, which is the succession of her son as a first son, gives the idea that the only practise of 'Hyoje' is the realization of ambition or key to living happily. This is, however, just an illusion, because in reality it is hard to practise 'Hyoje' like Hwajin, and, if practised, such a reward is not given as Hwajin receives. Nevertheless, <Changsungamerok> describes such a reward seems to be possible to get, and through this is elaborately hidden author's logic of 'separation', the vertical hierarchy under the name of practical piety, which realizes the ideology at the time.

This thesis is unfolded on the premise that <Changsungamerok> is a book in which the upper class makes an effort to edify the citizen elaborately and secretly. It also gives careful consideration to how the discourse of 'Hyoje' acts as that of 'separation' of upper class, by analyzing the process of Hwajin's practice of 'Hyoje' and centering on its characterization, which can reveal the author's intention through edifying character in <Changsungamerok>.

Key Words <Changsungamerok>, Educational Purpose, Practical Hyoje(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Clan Rules of Patriarch, Separation, Author's Intention

논문투고일 : 2013. 10. 10

심사완료일 : 2013. 11. 19

게재확정일 : 2013. 11. 26